# “최강전력…더 세진 닥공” “GK·수비수 부담도 커져”

## 전북 코칭스태프 3인이 본 2016 시즌

### 꼭 꺾고 싶은 상대? 챔스리그 수천억 쏟아부은 중국 팀들
### K리그 우승은 당연…다른 팀들 시기·질투는 우리 자부심

최강희 감독을 보필하는 전북현대 코칭스태프 3인(왼쪽부터 김상식 코치, 박충균 수석코치, 최은성 골키퍼 코치)은 AFC 챔피언스리그와 정규리그 3연패를 꿈꾸는 녹색군단의 2016시즌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세 코치가 지난 1월 아랍에미리트(UAE) 전지훈련캠프에서 함께 포즈를 취했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K리그 클래식(1부리그) ‘챔피언’ 전북현대는 올 시즌 아시아 클럽 정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첫 단추도 잘 꿰었다. 23일 전주 안방에서 열린 FC도쿄(일본)와의 2016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E조) 1차전에서 2-1 승리를 거뒀다. 지독한 J리그 징크스탈출을 알린 신호탄이자, 2006년 이후 10년 만의 아시아 왕좌 탈환을 향하는 기분 좋은 첫 걸음이었다. 물론 전북의 꿈은 이게 끝이 아니다. 통산 5번째 정규리그 우승에 대한 욕심도 숨기지 않는다. 충분히 실현가능한 도전이다. 모기업(현대자동차)의 변치 않는 든든한 지원 속에 “성적과 흥행 모두를 잡겠다”는 전북 최강희(56) 감독과 이철근(63) 단장의 뚝심은 최상의 전력구축으로 이어졌다. 축구계도 ‘K리그 방위대’로 떠오른 전북의 우승 가능성을 높이 점친다.

그래서 누구보다 전북을 잘 알고, 또 전북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직접 물었다. 박충균(43) 수석코치와 김상식(40) 코치, 최은성(45) 골키퍼 코치 등 전북 코칭스태프 3인은 과연 녹색군단의 2016시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참모들이 본 최강희 감독은 어떤 사람인가.**

**박충균(이하 박)**=생각이 많은 분이다. 남들이 1~2번에 그칠 걸 3~4번씩 고민한다. 짧지 않은 시간을 함께 하며 ‘인간 최강희’가 어떤 사람인지를 대충 알 것 같다. 아, 못하시는 게 없다. 바둑 장기 골프, 심지어 낚시까지 죄다 잘하신다.

**최은성(이하 최)**=꼼꼼하다. 토의를 하고, 의견을 잘 물어보시는데 결정은 자신이 꼭 해야 한다.

**김상식(이하 김)**=음, 천재? 정말 농담이 아니고 못하시는 게 없다. 심지어 내기, 잡기에도 능하다. 뭔가 물어볼 때도 뻔한 대답을 좋아하진 않는다. 함부로 말하는 게 껄끄럽다. 여러 가지 상황, 변수에 잘 적응하는 카멜레온과 같은 사람이다.

**-올해 전북의 전력은 어떤가.**

**박**=우리가 상대적으로 (전력보강이) 많을 뿐이다. 다른 팀들도 똑같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FC서울과 울산현대 등도 꾸준히 전력을 채웠다. 아마 경쟁은 훨씬 심해질 거다. 다행히 ‘압도적인 경기력’을 위한 퍼즐이 채워졌으니 훨씬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게 됐다.

**최**=부담요소도 있다. 무게중심이 전방에 쏠려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위기가 많아질 가능성은 항시 염두에 둬야 한다. 골키퍼, 수비수들의 부담이 커졌다.

**김**=동감한다. 일단 정규리그 우승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고 본다. 다만 챔피언스리그는 또 다르다. 감독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중국 슈퍼리그 클럽들의 거센 물량공세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전략이 필요하다.

**-챔피언스리그는 ‘전북의 숙명’으로 불린다.**

**박**=부담이 없진 않다. 우린 K리그를 선도해온 팀이다. 주변 기대를 채우는 것 역시 만만치 않을 거다. 그래도 이렇게 늘 꾸준히 아시아 무대에 도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최**=정상은 오르는 것보다 지키는 게 어렵다. 우리에게 K리그가 그런 무대다. ‘지키는 자’의 입장에서 한 해를 보내야 한다. 반면 챔피언스리그는 ‘도전자’에 가깝다. 우리도 나름 전력을 보강했지만 주변국들의 공세는 훨씬 대단했다. 매 걸음에 충실해야 한다.

**김**=이루지 못할 꿈은 없다. 이전보다 훨씬 많은 노력과 치열한 준비가 뒷받침되면 충분히 목표를 이룰 수 있다. 2011년 준우승의 아쉬움에서 보듯, 약간의 운도 따라줘야 한다. 7년 연속 챔피언스리그 도전이라는 경험적 요소는 우리의 큰 무기다.

**-전북은 K리그에서 ‘공공의 적’이 돼 버렸다.**

**박**=팬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유럽은 팀 간 실력차가 대단하지만 아직 K리그 팀들의 격차는 종이 한 장 차이다. 무엇보다 우릴 꺾으면 모든 팀들이 마치 우승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비겨도 이긴 듯한 태도를 보이니 우리 입장에선 흐뭇할 뿐이다.

**최**=다른 팀 지도자가 전북을 이기고 싶다고 할 때마다 뿌듯하고 재미있다. 부담? 전혀 아니다. 그게 자부심이다. 사촌이 땅을 사도 배 아파하는 풍토에서 우릴 향한 시기와 질투는 우리에게 긍정의 자극을 준다.

**김**=시기와 질투. 그게 더 즐겁다. 그만큼 우리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반증이니. 이제 시기도 못하게 아예 완벽하게 시즌을 정복해야겠다.

**-꼭 이겨야 할 상대가 있나. 리그든, 아니든.**

**박**=정규리그부터 말하겠다. 서울이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랬다.

**최**=모든 무대에서 모든 팀들에게 고루 승점을 쓸어 담겠다. 특히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모든 팀들을 시원하게 밟아주고 싶다.

**김**=중국 팀에게는 지고 싶지 않다. 당장 우리 조에 편성된 장쑤 쑤닝을 비롯해 광저우 에버그란데 등 수천억 원 돈이 무섭지 않은 팀들에게 K리그 챔피언의 힘을 보여주겠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 3위와 8위 승점 5점차…독일은 지금 ‘3위 고지전’

## ▌할로분데스리가

‘1·2위는 내줬지만 3위는 포기 못 한다.’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최강자 FC바이에른 뮌헨(19승2무1패·승점59)과 그 뒤를 뒤쫓고 있는 2위 보루시아 도르트문트(16승3무3패·승점51)의 양강 체제가 이어지며 2015~2016 분데스리가 1·2위는 사실상 굳어진 분위기다. 오히려 3위 고지쟁탈전이 치열한 양상을 띠며 더 큰 열기를 뿜어내고 있다.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한 ‘돌풍의 핵’ 헤르타 베를린은 승점 36(10승6무6패)으로 3위에 올라있다. 지난 시즌 15위로 간신히 강등을 면했으나 다르더이 팔(39) 감독의 지휘 아래 팀은 180도 변하며 주위를 놀라게 했다. 현지 언론은 “베를린이 지금까지도 상위권을 유지하는 것은 기적과 같다. 지금과 같다면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티켓도 도전할 만하다”고 평가한다.

다음으로 4위 바이어 레버쿠젠이다. 현재 승점 35(10승·5무·7패)로 베를린을 1점차로 바짝 뒤쫓고 있다. 시즌 초반 손흥민(24·토트넘 홋스퍼)의 이적과 주전들의 잇단 부진으로 주춤했으나 하비에르 에르난데스(28)의 활약과 더불어 공격력이 되살아나 4위까지 부상했다. 수비력도 한층 안정되며 23실점(리그 2위)에 그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아울러 5~8위에 있는 팀 모두 3위를 가시권에 두고 있다. 5위 보루시아 묀헨글라드바흐는 레버쿠젠과 승점(35)이 같아 한 경기만 승리해도 바로 3위 도약이 가능하다. 6위 FC샬케04(승점 34)는 분데스리가에서 꾸준히 강호로 분류되는 팀이고, 8위 VFL볼프스부르크(승점31) 역시 지난 시즌 2위로 마감하며 그 저력을 보여준 바 있다. FSV마인츠도 7위(승점 33)로 선전하고 있다. 볼프스부르크와 베를린의 승점 차이는 불과 5점에 불과해 34라운드까지 진행되는 동안 어떻게 변할지는 아직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분데스리가는 3위 싸움이 뜨겁다. 헤르타 베를린의 살로몬 칼루(가운데)가 지난 20일(한국시간) VFL볼프스부르크전에서 골을 넣은 뒤 동료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베를린(독일) | AP뉴시스

이미 22라운드까지 진행되는 동안 3위를 두고 엎치락뒤치락했다. 분데스리가는 현재 전통강호와 신흥강자의 대결구도가 3위 쟁탈전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현지에서도 “시즌이 끝나기 전까지 예측하기 어렵고, 계속 신·구 경쟁구도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3위를 차지한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바로 다음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직행티켓을 획득함과 동시에 구단에게는 방송중계권과 티켓가격, 그리고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커다란 수입 등 많은 변화를 안겨주기 때문이다. 아직 어떤 팀이 3위를 차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경쟁구도는 팬들에겐 또 다른 흥밋거리로 다가오고 있다. 퀼른(독일) | 윤영신 통신원

편집 | 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

# 못다한 꿈 올림픽…김정미의 마지막 도전

## 윤덕여호 匹 최종예선 출격…첫 본선 도전
## “현역 마지막 기회” 센추리클럽 가입도 눈앞

여자축구대표팀 최고참 김정미가 일본 출국을 하루 앞둔 24일 전라남도 영암 현대삼호중공업 훈련장에서 마지막 훈련을 하고 있다. 영암 | 뉴시스

여자축구대표팀 ‘윤덕여호’는 또 한 번의 위대한 역사에 도전한다. 사상 첫 올림픽 본선진출의 벅찬 꿈이다. 4일부터 24일까지 전라남도 영암에서 치열한 담금질을 마친 태극낭자들은 6개국(한국·일본·북한·중국·호주·베트남) 풀리그 형식으로 진행될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아시아 최종예선(29일~3월 9일)에 나서기 위해 25일 일본 오사카로 출국했다.

오직 상위 2개국에 주어질 올림픽 출전의 영광. 모두가 간절히 그 순간을 기다리지만 더욱 특별한 감정을 지닌 이가 있다. 여자대표팀 ‘터줏대감’ 수문장 김정미(32·현대제철)다. 2003년 6월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선수권에서 처음 태극마크를 단 그녀는 한국여자축구가 이룬 굵직한 역사의 현장에 항상 있었다. 현 대표팀에서 사상 첫 월드컵 본선(2003년 미국), 사상 첫 월드컵 16강 진출(2015년 캐나다)을 함께 한 이는 김정미가 유일하다.

그러나 김정미가 유일하게 밟지 못한 무대가 있다. 올림픽이다. 월드컵 2회, 아시안게임 3회(2006년 카타르 도하·2010년 중국 광저우·2014년 인천), 아시안컵 5회 등 각종 메이저 국제대회를 고루 뛰어봤지만 올림픽은 인연이 닿지 않았다. 2004년 그리스 아테네~2008년 중국 베이징~2012년 영국 런던으로 이어진 3차례 올림픽 아시아 지역예선에서 번번이 쓴 잔을 들었다.

어쩌면 현역 선수로서 가능한 마지막 올림픽 출전의 기회. 김정미는 출국에 앞서 “아직 올림픽에 나선 경험이 없어 더 없이 소중한 순간”이라고 했다. 여기에 개인적인 영광도 있다. 오사카에서 1경기만 더 출전하면 권하늘(부산상무)에 이어 여자축구 사상 2번째로 센추리클럽(A매치 100회 이상)에 가입할 수 있다. 29일 열릴 북한과의 1차전이 센추리클럽 가입 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김정미는 “북한 일본 중국 등 강호들을 꾸준히 상대해왔다. 돌이켜보면 실점 장면이 비슷비슷했다”며 “‘크게 사고 치자’는 게 우리의 키워드다. 더 잘하려다보면 실수가 많아진다. 지금은 마음의 평정심이 가장 중요하다. 꼭 올림픽에 가고 싶다”며 주먹을 쥐어 보였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 왼발의 달인 염기훈 “올 시즌 슈팅 더 자신있다”

## “장점 더 키우려고 슈팅훈련 집중”

수원삼성의 간판스타 염기훈(33·사진)은 지난해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K리그 클래식(1부리그)에서 35경기에 출전해 8골·17도움을 기록했다. 그가 기록한 17도움은 리그에서 가장 많은 수치였다. 최근 3년간 한 시즌에 그보다 많은 도움을 기록한 선수는 아무도 없었다. 또한 절정에 이른 왼발 슈팅 솜씨를 자랑하며 ‘왼발의 달인’이라는 명성을 더욱 굳건히 했다.

염기훈은 지난해의 좋은 페이스를 새 시즌에도 이어가기 위해 겨울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25일 “겨울 훈련 기간 동안 부상 없이 착실하게 준비를 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염기훈이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바로 슈팅이다.

염기훈은 “내 나이가 서른을 훌쩍 넘었기 때문에 단점을 갑자기 채울 수는 없다. 단점을 한 순간에 채우거나 기량이 급성장할 수는 없는 시기다”라며 “내 단점을 채우려하는 것은 욕심이다. 그것보다는 내 장점을 더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프리킥을 비롯한 슈팅 훈련에 보다 집중하고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 환상적인 왼발 슛으로 스포트라이트를 이끌어냈던 그는 “슈팅에 자신감이 더 붙었다. 올 시즌에는 지난해보다 더 멋진 슈팅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기대해 달라”며 새 시즌에 대한 강한 의욕을 내비쳤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 인판티노 vs 셰이크 살만…FIFA 새 회장 2파전

〈UEFA 사무총장〉 〈AFC 회장〉

인판티노(왼쪽)사무총장과 셰이크 살만 회장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 선거가 26일(한국시간)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FIFA 본부에서 실시된다. 각종 비리로 얼룩진 FIFA를 재건할 ‘세계 축구 대통령’은 누가될까. 후보자는 지아니 인판티노 유럽축구연맹(UEFA) 사무총장과 알리 빈 알 후세인 요르단 왕자, 제롬 샹파뉴 전 FIFA 국제국장, 셰이크 살만 아시아축구연맹(AFC) 회장, 남아공의 백만장자이자 정치 운동가 토쿄 세콸레 등 총 5명. 이 중 인판티노 UEFA 사무총장과 셰이크 살만 AFC 회장의 2파전으로 압축된 분위기다. 인판티노는 세계 축구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 중인 UEFA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여기에 남미축구연맹(CONMEBOL)도 우호적이다. 셰이크 살만 회장은 아프리카축구연맹(CAF)과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AFC의 지지에 기대를 걸고 있다. 미국 스포츠전문매체 ESPN은 셰이크 살만 회장의 당선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점쳤다. 만약 당선될 경우, FIFA 112년 역사상 첫 아시아인 회장이 된다. 회장 선거는 209개 회원국들의 투표로 진행된다.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도 현지에서 투표에 참여할 예정이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